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두산건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 구현 및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와 연계해 안전을 더욱 핵심적인 가치로 추진 할 것입니다. 안전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안전을 챙기지 않을 수 없도록 KOSHA/OHSAS 18001를 기초로 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완벽히 설계할 계획입니다. 두산건설은 오늘의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매진하여 Safety Global Company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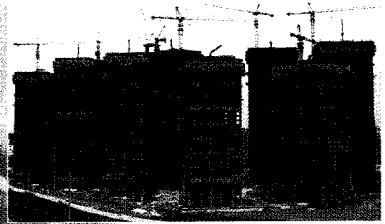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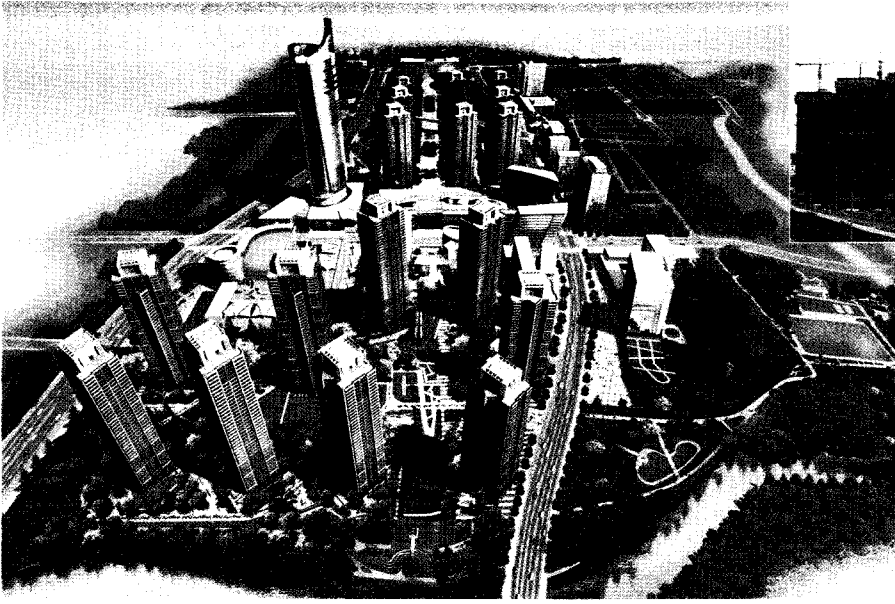
두산건설

매일경제 안전경영 종합대상 수상

채희수 부사장

취재/사진 · Willy기자





▲ 청주 지웰시티 공사 현장
 ▲ 청주 지웰시티 조감도

DOOSAN 그룹 박용만 회장의 강조사항인

두산 Way(Our Credo)인 강력 추진

두산건설은 2008년도 제16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안전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매일경제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경영 최고의 상을 수상한 두산건설은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의 강조사항인 두산 Way(Our Credo)인 “즉,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은 우리 모두와 가족,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사전 위험성도출 및 개선 활동인 9 TO 5(Nine Safety Patrol Five Safety Meeting)운동을 KOSHA 18001 안전경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안전경영 최고의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두산건설은 특화된 안전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두산건설 EHS 담당 채희수 부사장의 전략이 서서히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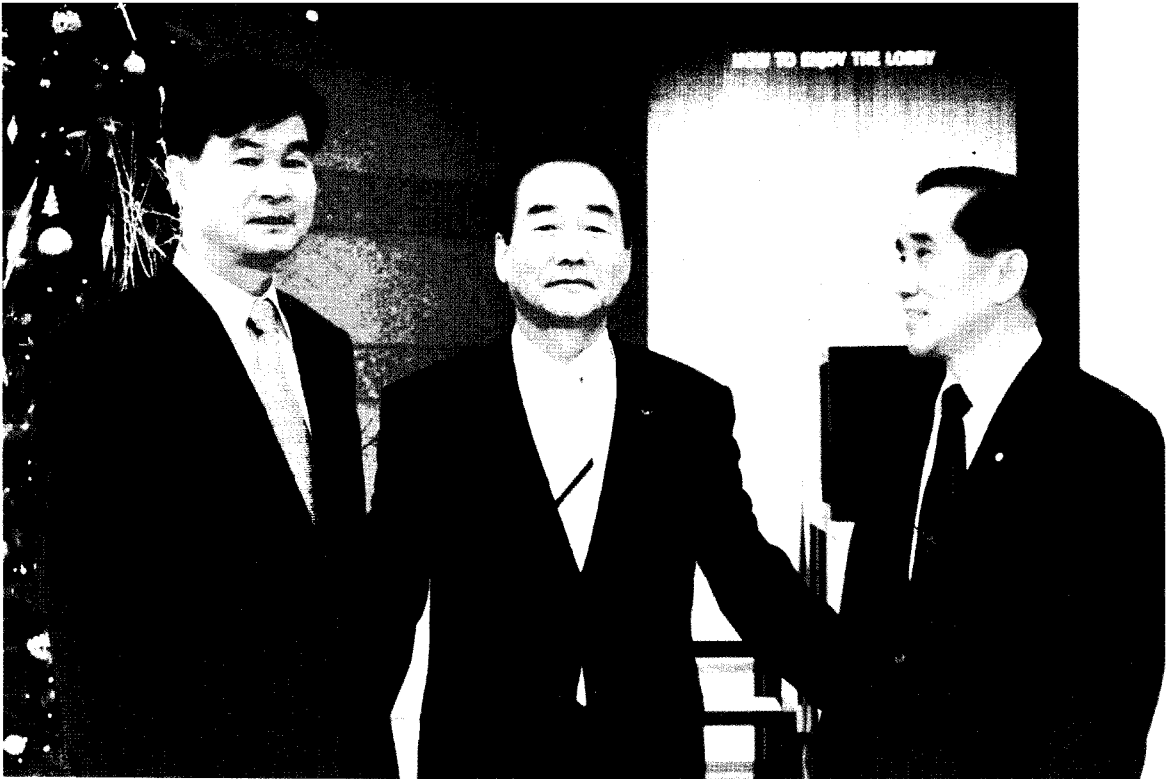
“인본주의 경영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한 안전경영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두산건설은 급변하는 건설 환경 즉, 고객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요구 증기에 맞춰 안전업무의 세계화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화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안전 환경 분야에 대한 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확대 시행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같은 안전경영 의지는 청주지웰시티 현장에서 적극 추진된 9 to 5(Nine Safety Patrol-Five Safety Meeting)운동으로 극대화 되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 청주지웰시티 현장은 하루출력 근로자 최고 850명, 총 협력업체 50개사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 현장으로 지난 9월 무재해 2배인 200만인시를 달성하는 등 착공 후 무재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부각되고 있다.

청주지웰시티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 9 to 5 운동은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적극 찾아내고 FEED BACK 하기



2008년 매일경제 안전경영대상 수상자.



두산건설 채희수 부사장과 대담을 나누는 협회 박구준 부회장, 안무영 전문위원(좌)

위하여 현장의 최고경영자인 현장소장에서 부터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매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을 하며, 위험요소를 제어하는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EHS 가이드라인은 그룹전략 본부와 합동으로 제정, 선포 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업계중 최초로 KOSHA 18001 인증과 OHSAS 18001인증을 통합으로 동시에 도입하여 자율안전관리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두산건설의 EHS 가이드라인은 법규보다 한층 강화된 건설현장 안전환경에 대한 세부실행지침으로 현장 내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본이며 모든 안전환경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 채희수 부사장의 설명이다. 그룹 전략본부와 합동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안전 7개 부문에 대하여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내용 등 총 133개 공종에 대하여 유형별 안전시설 및 작업 기준과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작업방법을 세분화하여 청주지웰시티 현장을 비롯한 두산건설의 모든 현장에 그대로 시행,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화 되어 현장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 될 수 있었으며 그룹과 합동으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해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의무화 하였다.

DOOSAN 2008년 국내 건설업계최초로

OHSAS 18001 인증

두산건설은 2008년 국내 건설업 최초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을 BV국제인증으로부터 OHSAS 18001을 통합 공동인증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인증시스템의 장점을 도출,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후심사도 타 업체와 차별화해 통합된 사후 심사를 진행하였다. 두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비슷하나 진행이 다른 부분들을 인증기관과의 꾸준한 회의와 검토를 거쳐 최상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두산건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9 TO 5 운동과 연계, 시스템을 보완



두산건설 안전경영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채희수 부사장.

하였으며 일일 위험 현황도를 활용한 아침 TBM(안전작업 지시) 실시, 문서체계의 일원화 및 문서 통합을 통한 작업의 신속성,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어 내었다.

두산건설은 공사 전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는 협력업체 소장이 직접 작성해 주 단위로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공사과장, 공사부장이 협력업체 소장과 위험성을 재평가해 재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매일 위험성평가서를 기초로 한 안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당일 일어나는 위험성을 파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안전의 핵심 즉, 모든 작업은 작업전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한다는 것이다.

DOOSAN "나부터 안전 한다" 감성안전 의식개혁 운동

두산건설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나부터 안전한다". 슬로건은 감성안전관리 측면으로 볼때 우리라는 동료의식과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재해근절에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근로자 스스로를 안전관리의 한 조직으로 육성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누가 먼저가 아닌 나부터 안전함으로서 베푸는 조직문화를 구축함에 목표를 두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전 직원 및 전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나부터 안전한다" 스티커 부착, 뺏지 패용, 관련 현수막 게시, 근로자 이름 불러주기, 상호 존칭하기, 스마일 운동, 근로자 휴식 공간 확보, 동료근로자 안마운동,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상담실 운영 및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우수모범근로자 시상, 현장별 사위실 운영, 감성안전관리비 배정, 근로자 가족사진 콘테스트, 근로자 참여 포어, 포스터 경진대회를 추진하였다.

근로자들에게 수직관계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개선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근로자는 내 가족처럼 이라는 마인드를 갖게 해 근로자가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지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심

과 애정을 쏟으며 근로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근로자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었다. 나부터 안전 한다. 감성안전관리 의식개혁은 근로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로 근로자가 하루를 일하더라도 내 직장이라는 프로정신을 갖게 되었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자율안전관리 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주지웰시티 현장의 무재해 2배 달성을 비롯해 41개 현장이 무재해를 달성한 저력 두산건설의 안전경영 실천은 올해에도 대한민국 최고를 향해 펼쳐질 것이다.

DOOSAN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

최근의 건설현장 여건은 고층화, 대형화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경향의 재해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두산건설의 9 to 5 운동은 체계화되고 시스템적인 안전관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9 to 5(Nine Safety Patrol Five Safety Meeting)운동은 현장소장 및 전 직원 모두가 참여 하여 매일 잠재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찾아내어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안전을 이루기 위해선 근로자 개인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은 누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시설을 완벽히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의식 확보가 부족 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감성안전 의식개혁을 추진하여 회사의 노력을 근로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근로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 숭선수범하는 안전활동을 유도하였다.”

회사의 안전관리를 잘 챙기면 기업의 재무적인 이익으로 반드시 환원되며, 안전관리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이라며 힘주어 말하는 채희수 부사장이 펼칠 2009년 안전경영이 기대된다.



지난해 매일경제신문 안전경영 대상을 수상한 두산건설 채희수 부사장과 수상소감 및 향후 전략에 대한 대답을 나누고 있는 협회 박구준 부회장과 안무영 전문위원.



두산건설 채희수 부사장

두산건설 채희수 부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감성안전 의식개혁 슬로건 “나부터 안전한다”에 따라 일선 근로자로부터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로 안전활동에 참여해 안전의 기본방침인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실천, 중대재해를 예방하였고 사전관리를 통해 시스템화 된 안전관리활동, 자율안전관리를 확보해 안전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이번 안전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경영 선도 기업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고 밝혔다.